

노인성 어지럼증 환자에 대한 신기환의 증례보고 1례

조창환¹ · 김수진¹ · 이혜진¹ · 신현수¹ · 안정조¹ · 조현경¹ · 김윤식¹ · 설인찬¹ · 유호룡^{1*}

1 Cases Study of The Effect of Jaeumgeonbi-tang Gamibang on the functional dizziness

Jo Chang Hwan¹ · Kim Su Jin¹ · Lee Hye Jin¹ · Shin Hyun Su¹ · An Joung Jo¹ ·
Jo Hyun Kyung¹ · Kim Yoon Sik¹ · Seol In Chan¹ · Yoo Ho Rhyong^{1*}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 Case of dizziness treated with Singi-hwan is reported. Singi-hwan is an herbal formula historically used for Jing(精) deficienc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dizziness is a common symptom presented in patients with Jing(精) deficiency. An elderly patient diagnosed with senile dizziness was treated using Singi-hwan for ten consecutive days in Dunsan Oriental Hospital, and has shown positive outcome.

Key words : Senile dizziness, Singi-hwan

I. 서 론

어지럼증은 일차의료에서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의 하나로, 특히 노인에게서 빈도가 더욱 높아, 75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약 30%가 어지럼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렇듯 노인의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적절히 치료되지 못함으로 인해 낙상 및 사고 위험 증가의 주요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노인

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원인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하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¹⁾

한의학에서는 어지러움이 上氣不足, 髓海不足, 肝風, 痰, 風火, 氣虛, 血虛, 腎虛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²⁾ 특히 노인성 어지러움은 上氣不足, 髓海不足, 氣虛, 血虛, 腎虛 등 虛症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腎氣丸은 東醫寶鑑 虛勞門 腎虛藥에 나오는 처방으로 六味地黃元에 五味子를 가한 처방이다. 허로로 腎이 상한 것을 치료하고, 腎水를 생기게 한다. 또한 肝을 補한다고 하였다.³⁾ 그동안

* 교신저자 : 유호룡,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e-mail:medicdragon@hanmail.net
투고일 : 2011년4월29일 확정일 : 2011년 5월23일

1) 이강건. 노인의 어지럼증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임상노인학회 춘계학술대회. pp99-107, 2006.
2) 전국한의학과학 심계내과학교실. 한방 순환신경내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pp388-403, 2010.
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42-3,

현훈에 대한 한의학의 연구 많이 있었으나 노인성 현훈에 대한 증례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본원에 어지러움 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 중에서 노인성 어지럼증으로 사료되는 분에게 腎氣丸을 투약하여 유효한 호전이 있는 1례가 있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증례1

1. 환자 : 김OO, M/80
2. 주소 :
 - 1) Dizziness NRS 8
 - 2) Headache
 - 3) Gait disturbance
3. 발병일 : 2008년경
4. 입원치료 기간 : 2011. 2. 22.부터 외래 치료
5. 현병력 : Brain MRI 상 별무소견
6. 과거력 : HTN, DM, 신경정신과 약물복용중
7. 진찰소견
 - 1) 초진당시 활력징후 : 혈압 130/70mmHg, 체온 36.5℃, 맥박수 68회/분, 호흡수 20회/분
 - 2) 어지럼증, 두통으로 자주 넘어짐
 - 3) 客症(飲食傷 好, 大便 1회/2일, 七情氣滯 多, 가래없음, 제하함몰3, 火實
 - ① 全身症狀: 별무호소
 - ② 皮膚: 微白
 - ③ 意識狀態: 명료
 - ④ 口咽喉: 口乾(-), 口苦(-), 후비루(-)
 - ⑤ 胸部 : 胸痛(-), 胸悶(-)
 - ⑥ 消化: 양호
 - ⑦ 睡眠: 양호
 - ⑧ 大便: 2일 1회
 - ⑨ 小便: 별무소견
 - ⑩ 舌診: 舌淡紅 苔薄白
 - ⑪ 脈診: 右關弦

⑫ 腹診: 臍下微陷沒

8. 치료 및 경과

1) 한약처방 : 腎氣丸(熟地黃 32g, 山藥 16g, 山茱萸 16g, 白茯苓 12g, 牡丹皮 12g, 澤瀉 12g, 五味子 12g) 총 10貼을 30pack 으로 탕전하여 1일 3회 (조식, 중식, 석식후 30분)로 10일간 복용하였다.

2) 침치료

合谷, 太衝, 足三里, 內關, 公孫을 선택하여 호침 (직경 0.20mm, 길이 30mm, 동방침구제작소, 스테인레스 스틸)으로 침관을 이용하여 合谷, 太衝, 內關, 公孫은 10mm, 足三里는 25mm의 깊이로 자입하고 平補平瀉의 방법으로 得氣를 수행하고 주 1회 총5회, 1회 20분 留鍼하여 시행하였다.

3) 경과

치료시작일(2011. 2. 22.)에 어지럼증은 NRS 8로 침치료만 시행하였고, 두 번째 내원일(2011. 2. 25.)에 어지럼증은 NRS 7로 호전되었고, 腎氣丸 10貼 (10일분)을 처방하였다. 7일 복용 후 (2010. 3. 2.)에 어지러움은 NRS 3정도로 감소하였고, 세 번째 내원일(2011. 3. 11.)에 어지러움은 NRS 1로 호전되었다.

Table 1. The Progress of Treatment and Symptoms on Case

	2/22	2/25	3/7	3/11
Herb Medicine	none	SGH	SGH	SGH
Acup. Tx.				
NRS of Dizziness	8	7	3	1

SGH: Singi-hwan

III. 고찰

어지럼증이란 주위의 공간이 자신이 기대하는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주위에 대한 공간감각 정보는 입력과 분석과정을 거쳐서 대뇌에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각 정보가 입력되는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간감각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

어지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⁴⁾

공간감각 정보가 입력되는 신체기관은 전정기관, 시각계와 체성감각계인데 전정신경염, 백내장,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귀에 찬물이 고막까지 들어갈 때나, 안경도수가 맞지 않을 때, 눈을 감고 방석위에 서 있을 때에도 같은 기전으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런 경우를 “말초성 어지럼”이라고 한다.⁵⁾

대뇌, 소뇌와 뇌간의 병변이나 전신 질환이 있을 때에도 공간감각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지럼을 느끼게 된다. 허기짐, 수면부족, 피로, 약물 등도 같은 기전으로 어지럼을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기전으로 일어나는 어지럼을 “중추성 어지럼”이라고 한다.⁶⁾

노인성 어지럼(senile vertigo)은 기립하거나 걸을 때 심해지고 누우면 없어지며, 가만히 앉아서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걷다가 주위의 상황이 복잡할 때 “핑 도는” 느낌으로 0.1초에서 수 초 정도 어지럼의 증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다. 다만, 진찰이나 검사에서 특정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노인성 어지럼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형 재훈련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⁷⁾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 上氣不足, 髓海不足, 肝風, 痰, 風火, 氣虛, 血虛, 腎虛에 있다고 하였고 許 등도 氣血不足에 의해 虛證의 현훈이, 風, 火, 痰에 의해 實證의 현훈이 발생된다고 보았다.⁸⁾⁹⁾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諸

風掉眩皆屬於肝”¹⁰⁾이라 하여 모든 風과 眩暈은 肝에 屬한다고 하였으며, 許¹¹⁾는 風, 寒, 暑, 濕, 氣鬱, 生涎, 下虛上實로 보았고, 周¹²⁾는 虛弱人이 外邪에 感觸되고 內傷으로 七情이 鬱結되어 痰이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李¹³⁾는 頭眩하여 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肥瘦를 먼저 辨別하여 치료에 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朱¹⁴⁾는 丹溪心法·頭眩에서 “無痰不作眩”이라 하여 眩暈의 원인을 痰飲으로 보았다.

노인성 어지러움에 대해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¹⁵⁾에서 40세 이후의 신체 변화에 따른 老化的 진행과정을 서술하였으며 老化는 陰精의 소모가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陰精에 의해 안정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던 陽氣가 위로 상승하여 신체의 氣의 분포는 위로는 盛해지고 아래가 衰해지는 下虛上實의 상태로 바뀌어가므로 眩暈의 증상이 많아지는데 이는 下體가 약해져서 上體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靈樞·海論에서는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暈”¹⁶⁾라 하여 髓海가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 돌고 귀가 울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눈이 어지럽고 캄캄해진다고 했다. 이는 精이 몸의 근본이 되며 노인이 되면서 精이 부족하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仙書¹⁷⁾에서 “肝精不固 目眩無光”이라 하였는데 肝精이 든든

4) 한병인, 임준성, 김지수, 김태유, 송현식, 오희중, 이호원. 어지럼과 이명 그림으로 보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술, pp15, 113, 2010.
 5) 한병인, 임준성, 김지수, 김태유, 송현식, 오희중, 이호원. 어지럼과 이명 그림으로 보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술, pp15, 113, 2010.
 6) 한병인, 임준성, 김지수, 김태유, 송현식, 오희중, 이호원. 어지럼과 이명 그림으로 보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술, pp15, 113, 2010.
 7) 한병인, 임준성, 김지수, 김태유, 송현식, 오희중, 이호원. 어지럼과 이명 그림으로 보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술, pp15, 113, 2010.
 8) 전국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교실. 한방 순환·신경내과

학. 서울, 군자출판사, pp388-403, 2010.
 9) 임광모, 정현우. 자음근비탕가지각·천마가 뇌세포 및 뇌혈류역학 변동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1):64, 2003.
 10)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出版, 中華民國六十七年, pp22, 62.
 11) 許浚.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編.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p227, 1992.
 12) 周命新. 國譯韓醫學大系. 醫門寶鑑 제2권, 서울, 해동의학사, pp110, 1999.
 13)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IV. 서울, 남선당, pp112, 1992.
 14)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 서울, 대성문화사, pp449, 1993.
 15)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出版, 中華民國六十七年, pp22, 62.
 1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42, 2005.
 1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42-3, 2005.

하지 못하면 역시 눈이 어쩔어쩔하여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인성 어지럼증은 腦髓不足, 腎精不足, 肝精不足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六味地黃元은 陰虛證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精髓를 補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腎氣丸은 六味地黃元에 五味子를 가한 처방으로 東醫寶鑑 虛勞門 腎虛藥 실려 있으며 “治虛勞腎損..生腎水也..又能補肝..”라고 설명되어 있다.¹⁸⁾

본 증례의 환자분은 본원에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노인성 어지러움으로 사료되었다. 그래서 신기환을 처방하여 투약하였고 환자분의 Dizziness는 NRS 8 (2/22), → NRS 7 (2/25) → NRS 3 (3/7) → NRS 1(3/11)의 경과를 보이며 호전되었다.

이번 증례보고는 단편적인 보고이기는 하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유효한 결과를 거둔다면 많은 노인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한방치료에 접근하리라 기대되고, 이를 통하여 많은 노인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한 한의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V. 결 론

본 저자는 어지럼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노인성 어지럼증 환자 1례에서 腎氣丸을 투약하여 증상 호전을 보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이강건. 노인의 어지럼증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pp. 99-107, 2006.
2. 전국한외과대학 심계내과학교실. 한방 순환·신경내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pp. 388-403, 2010.

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 42-3, 1268-9, 2005.
4. 한병인, 임준성, 김지수, 김태유, 송현석, 오희중, 이호원. 어지럼과 이명 그림으로 보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p. 15, 113, 2010.
5.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出版, 中華民國六十七年, pp. 22, 62.
6. 許浚.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編.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p. 227, 1992.
7. 周命新. 國譯韓醫學大系. 醫門寶鑑 제2권, 서울, 해동의학사, pp. 110, 1999.
8.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IV. 서울, 남산당, pp. 112, 1992.
9.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 서울, 대성문화사, pp. 449, 1993.

1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1268-9, 2005.